

일부 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비교

Comparison of Meal Management Attitudes among Housewives between in Industrial Complex and in Non-Industrial Complex of Ansan City in Korea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대학원생 남 숙 연
교 수 김 선 호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 Suk Yeon Nam

Prof. : Sun Hyo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meal management attitudes among the mothers(41 years of age) who had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in industrial complex and in non-industrial complex. The subjects of each group were composed of 192 mothers living in Ansan city in Korea, an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 (1) Monthly family income and education level of parents were lower in industrial complex-family(ICF) than in non-industrial complex-family (NICF). The mean age of mothers and family size were similar in two groups, but the frequency of mothers employed was higher in ICF than in NICF. Most mothers in ICF worked as a manual- or skilled-laborer.
- (2) The mothers in ICF tended to have less positive attitude in serving balanced meals to their families than those in NICF. The score of nutritional knowledge was lower in mothers in ICF than those in NICF.
- (3) The percentage of expense for purchasing staple foods to total expense of foods tended to be higher in ICF than in NICF. Engel's coefficient was higher, and the frequency and expense for eating out was lower in ICF than in NICF.
- (4) The mothers in ICF did not try to use their time and energy efficiently for meal management.

(5) The mothers in ICF were less active in serving the pleasurable meals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cooking methods, flavors, and temperatures, to their families, than those in NICF.

Above findings show that family environment such as industrial complex-families and non-industrial complex-families influences the meal management attitudes of mothers. The mothers in ICF had a less positive attitudes for scientific meal managements than those in NICF even though they had the limited resources including money, time and energy for meal management because most mothers in ICF had a job that were paid low salary and finished irregularly or late. Therefore,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to provide the sound nutritional education for the mothers in ICF with respect to reasonable meal management for 'optimal nutrition of fami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the various welfare policies to improve nutritional status of low income families including the poor industrial complex-families.

주제어(Key Words): 가정 환경(family environment), 공단지역가정(industrial complex family),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meal management attitude of mothers)

I. 서론

어머니가 가족의 식생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관리하는가는 가정의 소득 수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직종 등을 포함하는 가정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명희, 송은주, 이미숙, 박옥진, 1992; 김인숙, 1991; 정희정, 1995).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정의 생활 환경 중 산업 사회 이후 등장한 공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비공단 지역 가정에 비하여,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명희 외 3인, 1992). 그리고 공단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해 주부가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 이 지역의 주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취업에 따른 시간 부족 등으로 식생활 관리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문자, 이미리, 1998; 정문자, 이미리, 2000; 정문자, 이미리, 이주경, 1998; 정현희, 최경순, 1996).

가정의 소득 수준과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경우 식단이 주로 주식 위주로 구성되어 식사 내용이 단조로운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선, 2000; 최현자, 1998; 현기순, 홍성야, 임양순, 이에랑, 1998). 실제로 일부 영세 공단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 섭취 실태는 권장량보다 낮으며, 특히 철과 칼슘의 섭취

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상자는 아침을 굶거나 라면 등 열량위주의 편의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다(강명희 외 3인, 1992; 손숙미, 박성희, 1999). 이와 관련하여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경제 위기 후 IMF 체제 이전보다 가정의 각종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다른 품목에 비해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연경, 2000; 최현자, 1998).

또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가족의 식생활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인숙(1991)의 연구에서, 전일제 취업모 가정의 경우 전업 주부나 시간제 취업모 가정에 비해 가족의 식생활을 돌 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공단 지역에서 일할 때 가족을 위한 식생활 관리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신 식생활을 관리해줄 수 있는 대체 자원을 마련해야 하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가족을 위한 영양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 환경은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단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가 귀가 시간이 늦거나 일정하지 않는 영세한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등의 가정 환경 요인은, 가족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는 데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공단 지역 가정에 속한 가족의 영양 섭취가 불량하기 쉬울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화 사회에서 날로 늘어가는 공단 지역의 식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단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단 지역 영세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가 대조군인 비공단 지역 가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조성된 신흥 공업 단지로, 거주 인구의 3.6%가 저소득층이며 공단 근로자 중 29%가 미혼 또는 기혼의 여성이다. 이들 여성들은 주로 영세한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생산직으로, 월평균 472,000원을 받으며 1주일 중 평균 3일을 잔업을 하는 등 귀가 시간이 늦은 편이다. 공단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대상 어머니의 65% 이상이 공장의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단순 노동자인데 비하여,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72%는 전업주부이거나 시간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산시, 1998).

따라서 '공단 지역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의 형태는 소득 수준이 저소득층이며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공단 지역 가정'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중간이며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공단 지역군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

집단이며, 비공단 지역군은 월평균 수입이 150~300만원에 해당되는 중간소득층으로 어머니가 전업 주부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어도 식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집단으로 정하였다. 이들 각 집단에서 대상자의 월평균 수입 정도의 결정은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1997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분포 5분위로 나누어 볼 때, 중산층은 3~4분위에, 저소득층은 1분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하였다(통계청, 1997a; 통계청, 1997b).

본 연구에서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의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 중 한 사람이 안산시의 중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편의상 이 지역의 중학생 중 일부를 뽑은 후, 그들의 어머니에게 협조를 구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단 지역과 비공단 지역에 위치한 학교 중 학생수가 많은 중학교 1개교씩을 선정한 후, 각 학교의 1~3학년 학생(공단 지역: 총 27학급, 비공단 지역: 총 45학급) 가운데 각 군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평소 가계부를 쓰고 있고 협조가 가능한 가정 중, 군별로 192 가구씩을 무작위로 뽑아, 이들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안산시에서 중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중 무작위로 선정된 5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998년 9월 13일~9월 16일 사이에 실시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문항이 수정 보완되었다. 그리고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의 선정된 중학교 학생 중에서 각각 230명씩을 선택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998년 11월 9일~11월 14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총 432부이었으며,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두 집단의 크기가 같도록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192부씩을 선정하여 본 연구를 위한 통계 처리용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계획 수립시에는 공단 지역군에 대한 대조군인 비공단 지역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공단에서 영세한 직종에 종사하는가의 차이 이외에 가정의 식생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인, 어머니의 연령, 가족수, 학력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은 동일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조군의 선정 과정에서 조사가 가능한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두 군에서 가정의 경제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 수준을 같도록 구성하지 못하고, 대조군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중간 계층 가정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군에 대한 객관적인 대조군을 선정하여, 두 군간의 식생활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에 의해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예종립과 김선호의 연구(1996)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강명희 외 3인, 1992; 김미경, 기모란, 방금녀, 김기량, 최보율, 권영준, 이상선, 김찬, 강윤주, 1998; 김영희, 2001; 김혜영, 하태열, 김영진, 1995; 박혜련, 이경희, 류정순, 1997; 정희정, 1995)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에서 가정의 일반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과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 함께 식사하는 가족수,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 어머니의 직업 및 근무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식생활 관리 태도로는 영양면, 경제면, 시간·노력면 및 기호면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영양면에 대한 문항으로는 영양 지식의 수용과 활용을 위한 노력 정도 및 급원, 가족을 위한 균형 식사 제공과 식습관 지도 정도 및 영양 지식 수준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영양 지식은 가족이 영양 균형을 갖춘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기 위해 알아야 하지만 잘못 알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에 의해 고안된 10문항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경제면으로는 각 식품군별 월 구입비, 외식 횟수와 비용, 경제위기 후 식비 중 가장 먼저 줄인 항목 및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식비 지출에 관한 문항은, 가정에서 작성한 가계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간·노력면으로는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족의 도움, 편의 식품과 편리한 조리 기구의 활용, 계획적인 식생활 관리를 위한 노력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호면에 관해서 한끼 식사에서 다양한 조리법, 색, 맛, 질감 및 온도를 갖는 음식의 제공 정도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서 어머니의 식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시간·노력면 및 기호면에 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으로 작성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 대상 어머니의 영양 지식은 점수 분포를 중심으로, 총 10점 만점 중 0~6점, 7~8점 및 9~10점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영양 지식 문항에 대한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변별도 지수(discrimination index: DI)가 산출되었다.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영양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10문항의 DI값이 모든 문항에서 0.2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 변별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어(변창진, 최진승, 문수영, 김진규, 권대훈, 1997), 본 조사에서도 이들 문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영양 지식 문항의 DI값은 평균 0.35이며, 최소값은 0.25, 최대값은 0.45이었다.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내용 중 영양면, 경제면, 시간·노력면 및 기호면 등 식생활 관리의 각 영역에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주었는데, 그 결과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영역별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문항간의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정충영, 최이규, 1998)되어 본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 가정간의 일반 환경 및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비교는 t-test와

χ^2 -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 자료는 $p < 0.05$ 수준에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ersion 7.5) (정충영, 최이규, 1998)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표 1>에서와 같이 공단 지역군은 41.6세, 비공단 지역군은 41.4세로

같았고 아버지의 연령도 두 군 모두 43세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조사 대상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공단 지역군은 943,000원이고 비공단 지역군은 2,273,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5분위 계층별로 볼 때 각각 1분위와 3~4분위에 속하였다($p < 0.001$) (통계청, 1997a). 따라서 공단 지역군은 저소득층에, 비공단 지역군은 중간 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함께 식사하는 가족수는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 모두 4.1명으로 같으나, 통계청(1997a)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인 3.3명보다는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에서 고졸이 각각 76.0%와 66.7%로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학력이 비공단 지역

<표 1> 조사 대상 가정의 일반 환경

| 요 인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 가정의 일반환경 | 어머니의 연령(세) | 41.6± 0.2 ¹⁾ | 41.4± 0.2 | NS | |
| | 아버지의 연령(세) | 43.9± 0.2 | 43.5± 0.2 | NS | |
| | 월평균수입(만원) | 94.3± 1.1 | 227.3± 2.7 | *** | |
| | 함께 식사하는 가족수 | 4.1± 0.1 | 4.1± 0.1 | NS | |
|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계 | χ^2 -test |
| 어머니의 학력 | 중졸 | 27 ²⁾ (14.1) ³⁾ | 12(6.3) | 39(10.1) | *** |
| | 고졸 | 146(76.0) | 128(66.7) | 274(71.4) | |
| | 대졸 이상 | 19(9.9) | 52(27.0) | 71(18.5) | |
| 아버지의 학력 | 중졸 | 5(2.6) | 2(1.0) | 7(1.8) | *** |
| | 고졸 | 158(82.3) | 91(47.3) | 249(64.8) | |
| | 대졸 이상 | 29(15.1) | 99(51.7) | 128(33.4) | |
| 어머니의 직업 | 단순노동자 등 | 138(71.9) | 0(0.0) | 138(35.9) | - |
| | 숙련노동, 서비스직 종사자 등 | 54(28.1) | 6(3.1) | 60(15.6) | |
| | 자영 상공업, 기술자, 자영 서비스업 등 | 0(0.0) | 33(17.2) | 33(8.6) | |
| | 사무직, 교사, 경찰등 | 0(0.0) | 21(10.9) | 21(5.5) | |
| | 전업주부 | 0(0.0) | 132(68.8) | 132(34.4) | |
| 식생활 관리자 | 어머니 | 84(43.8) | 192(100.0) | 276(71.9) | - |
| | 딸 | 33(17.2) | 0(0.0) | 33(8.6) | |
| | 아버지 | 34(17.7) | 0(0.0) | 34(8.9) | |
| | 아들 | 22(11.4) | 0(0.0) | 22(5.7) | |
| | 할머니 | 19(9.9) | 0(0.0) | 19(4.9) | |
| 계 | | 192(50.0) ⁴⁾ | 192(50.0) | 384(100.0) | |

1) 평균±표준오차 2) 대상자의 수 3) 세로 합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4) 총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 $p < 0.001$

NS: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alpha = 0.05$).

-: 대상자의 수가 5 미만인 cell이 전체 cell의 20% 이상이기 때문에 χ^2 -test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다($p < 0.001$).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도 공단 지역군에서 더 낮았다($p < 0.001$).

어머니의 직업은 공단 지역군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나 숙련노동자이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공단 지역군은 전업 주부가 68.8%로 가장 많고 시간제로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20.3%이며, 전일제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10.9%로 나타났다.

각 군에서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를 보면 두 군 모두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히 비공단 지역군은 어머니가 전담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단 지역군은 실직을 한 아버지가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경우가 17.7%이며 아들 또한 11.4%를 차지하여, 어머니 이외에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식생활을 관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는 공단 지역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취업시 대신 식생활을 관리해 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가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공단 지역군에서는 식비 부족(52.1%) > 식생활 관리 시간 부족(24.0%) > 체력이 약함(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공단 지역군의 경우에는 식비 부족(28.6%) > 영양 지식 부족(16.1%) > 체력이 약함(15.1%) > 음식의 맛을 내기 어려움(13.5%) > 가족의 식성이 까다로움(13.0%) 등으로 응답되어,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p < 0.001$). 따라서 공단 지역의 경우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가정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가정의 수입 및 시간 부족이라는 선행 보고(정문자, 이미리,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2.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1) 영양면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간의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내용 중 영양면에 대한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보다 식사 준비시 알고 있는 영양 지식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영양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평소 가족에게 영양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보다 매끼 식사시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조리시 영양소 파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덜 하며, 식탁에서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밖에도 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경우 비공단 지역군에 비해 가족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도, 식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었다($p < 0.001$).

이와 같은 결과는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가족의 영양 관리 및 가족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사 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견순과 유영상(1992)의 조사에서,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식생활 관리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강명희 외 3인(1992)의 연구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부에게 영양 교육을 시켰을 때 지식, 태도 및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식생활 관리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로 미루어 볼 때, 주부의 식생활 관리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단 지역군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영양 지식 습득원을 보면 두 군 모두 TV/라디오/신문이 주요한 교육 매체이나, 그 다음으로는 공단 지역군에서는 자녀 > 이웃집 주부이며, 비공단 지역군에서는 잡지 > 이웃집 주부의 순으로 나타나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p < 0.001$).

영양 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영양 지식 점수가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보다 낮았다($p < 0.001$). 이는 <표 1>의 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학력이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학력보다 낮은 결과 및 <표 2>의 새로운 영양 지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식이 공단 지역군 어머니에서 낮은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영양면에 대한 비교¹⁾

| 내 용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 식사 준비시 내가 알고 있는 영양 지식을 활용한다 | | 3.1 ²⁾ ±0.1 | 3.5±0.1 | ** | |
| 새로운 영양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 | 2.7±0.1 | 3.7±0.1 | *** | |
| 식사시 가족에게 영양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 | 2.8±0.1 | 3.8±0.1 | *** | |
| 매끼 식사에서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한다 | | 2.6±0.1 | 4.0±0.1 | *** | |
| 조리시 되도록 영양소 파괴가 적은 조리 방법을 이용한다 | | 3.0±0.1 | 3.5±0.1 | *** | |
| 가정 경제가 어려워도 가족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식생활비는 아끼지 않는다 | | 2.8±0.1 | 3.6±0.1 | *** | |
| 식탁에서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를 한다 | | 3.5±0.1 | 4.1±0.1 | *** | |
|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계 | χ ² -test |
| 영양 지식 습득원 | TV/라디오/신문 | 112 ³⁾ (58.3) ⁴⁾ | 109(56.8) | 221(57.6) | *** |
| | 잡지 | 12(6.3) | 36(18.8) | 48(12.5) | |
| | 자녀 | 40(20.8) | 15(7.8) | 55(14.3) | |
| | 이웃집 주부 | 28(14.6) | 32(16.6) | 60(15.6) | |
| 영양 지식 점수 ⁵⁾ | 0~ 6점 | 104(54.2) | 61(31.7) | 165(42.9) | *** |
| | 7~ 8점 | 77(40.1) | 96(50.0) | 173(45.1) | |
| | 9~10점 | 11(5.7) | 35(18.3) | 46(12.0) | |
| 계 | | 192(50.0) ⁶⁾ | 192(50.0) | 384(100.0) | |

1) 평균±표준오차 2)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3) 대상자의 수
 4) 세로 합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5) 영양 지식은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6) 총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 p < 0.01 *** p < 0.001

2) 경제면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간의 어머니의 경제면에 대한 식생활 관리 태도 비교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 가정에서 월평균 총식비는 공단 지역군이 232,958원이고 비공단 지역군은 300,063원으로, 공단 지역군이 낮으며(p<0.001), 1인당 식비도 공단 지역군이 더 낮았다(p<0.001). 또 월수입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단 지역군은 24.7%, 비공단 지역군은 13.2%를 차지하여, 공단 지역군의 앵겔 지수가 높음을 보여주었다(p<0.001). 월평균 주식비는 공단 지역군이 49,515원으로 총식비 중 21.3%를 차지하고, 비공단 지역군은 55,635원으로 총식비 중 18.5%를 차지하여, 공단 지역군에서 총식비 중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부식비 중 채소류의 월평균 구입비가 총식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공단 지역군은 15.5%, 비공

단 지역군은 13.6%로 공단 지역군이 높았다(p<0.001). 동물성 식품 구입비가 총식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각 집단에서 20.2%와 21.2%로 나타났다(p<0.001), 월평균 조미료 구입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간식비와 외식비가 총식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공단 지역군이 비공단 지역군보다 낮았다(p<0.001).

이와 같은 본 조사의 결과는 도시가계 연보(1997)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며, 동물성 식품 구입비와 외식비의 비율은 낮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식생활 패턴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혜련 등의 보고(1997)와도 같은 양상이었다.

한편 외식 횟수에 있어서 공단 지역군인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외식을 하지 않는다가 55.2%나 차지한 반면, 비공단 지역군은 한 달에 1~2번 외식

을 하는 경우가 49%이고 한 달에 3~4번 이상이 40.6%로, 공단 지역군에서 외식 빈도수가 낮았다($p < 0.001$).

경제가 어려워진 후 식생활비 중 가장 먼저 줄인 부분은 두 군 모두 외식비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호식품비로 나타났다. 또 경제가 어려워진 후 공단 지역군은 부식비를 줄이거나 전체적으로 식비를 줄였다는 응답률이 비공단 지역군보다 높았다. 가족이 한번 외식시 사용하는 비용은 공단 지역군에서는 1~3만원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비공단 지역군은 3~5만원이 가장 많아 공단

지역군에서 일회 외식비가 낮았다($p < 0.00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다른 품목에 비해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민감하게 느낀다는 선행 연구(소연경, 2000; 최현자, 1998)의 지적처럼, 경제 수준과 사용 가능한 식비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또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외식과 기호 식품에 대한 지출이 낮다는 보고(박혜련 외 2인, 1997; 정용선, 1989)를 뒷받침해주었다.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의 식비를 줄이기 위한 식품 구입 행동 비교에 대한 결과는

〈표 3〉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경제면에 대한 비교

| 요 인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 월평균 총식비(원) | | 232,958 ± 1,467 ¹⁾ (24.7) ²⁾ | 300,063 ± 1,985 (13.2) | *** | |
| 주식비 | | 49,516 ± 520 (21.3) ³⁾ | 55,635 ± 355 (18.5) | *** | |
| 부식비 | 채소류 | 36,224 ± 304 (15.5) | 40,703 ± 275 (13.6) | *** | |
| | 생선 · 고기 · 달걀류 | 47,083 ± 953 (20.2) | 63,443 ± 723 (21.2) | *** | |
| 조미료비 | | 31,391 ± 436 (13.5) | 32,443 ± 386 (10.8) | NS | |
| 간식비 | | 37,729 ± 693 (16.2) | 54,583 ± 699 (18.2) | *** | |
| 외식비 | | 31,016 ± 803 (13.3) | 53,255 ± 1,363 (17.7) | *** | |
| 월평균 1인당 식비(원) | | 58,384 ± 816 | 75,674 ± 1,158 | *** | |
| |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계 | χ^2 -test |
| 가족 외식 횟수 | 전혀 하지 않는다 | 106 ⁴⁾ (55.2) ⁵⁾ | 20(10.4) | 126(32.8) | *** |
| | 한달에 1~2번 | 82(42.7) | 94(49.0) | 176(45.8) | |
| | 한달에 3~4번 이상 | 4(2.1) | 78(40.6) | 82(21.4) | |
| IMF이후 식생활비 중 가장 먼저 줄인 항목 | 주식비 | 0(0.0) | 0(0.0) | 0(0.0) | *** |
| | 부식비 | 27(14.1) | 10(5.2) | 37(9.6) | |
| | 기호식품비 | 66(34.4) | 49(25.5) | 115(30.0) | |
| | 외식비 | 81(42.2) | 71(37.0) | 152(39.6) | |
| | 간식비 | 18(9.3) | 30(15.6) | 48(12.5) | |
| 줄이지 않음 | | 0(0.0) | 32(16.7) | 32(8.3) | |
| 외식시 한번에 드는 평균 비용 | 1만원이하 | 74(38.5) | 31(16.1) | 105(27.3) | *** |
| | 1만원 ~ 3만원 | 96(50.0) | 45(23.4) | 141(36.7) | |
| | 3만원 ~ 5만원 | 22(11.5) | 70(36.5) | 92(24.0) | |
| | 5만원 ~ 10만원 | 0(0.0) | 37(19.3) | 37(9.7) | |
| | 10만원 ~ 15만원 | 0(0.0) | 9(4.7) | 9(2.3) | |
| 계 | | 192(50.0) ⁶⁾ | 192(50.0) | 384(100.0) | |

1) 평균±표준오차 2) 가정의 총수입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3) 총식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4) 대상자의 수

5) 세로 합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6) 총계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 $p < 0.001$

NS: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alpha = 0.05$).

〈표 4〉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비를 줄이기 위한 식품 구입 행동 비교¹⁾

| 내 용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 3.7 ²⁾ ±0.1 | 3.2±0.1 | ** |
| 특별할인 기간동안 식품을 구입한다 | 3.7±0.1 | 3.9±0.1 | NS |
| 만들어진 음식보다는 직접 집에서 음식을 만든다 | 4.2±0.1 | 4.1±0.1 | NS |
| 여럿이 모여 식품을 공동으로 구입한다 | 3.2±0.1 | 3.8±0.1 | *** |
| 조리하고 남은 식품을 재활용한다 | 3.2±0.1 | 3.5±0.1 | NS |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폐기율이 적은 식품을 구입한다 | 3.4±0.1 | 3.7±0.1 | * |

1) 평균±표준오차 2)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p<0.01 *** p<0.001 * p<0.05

NS: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α= 0.05).

〈표 4〉와 같다. 대체식품을 이용하는 정도는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보다 높으나(p<0.01), 식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향이나(p<0.001),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식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비를 줄이기 위해 특별 할인 기간을 이용하거나, 만들어진 음식보다는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리 후 남은 식품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비를 줄이기 위해, 단지 식품 구입 시 주요 영양소 함량이 비슷하게 들어 있는 값싼 식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경향이어서, 수입 수준이 낮은 공단 지역군의 경우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등 구입된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시간·노력면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간에 어머니의 시간·노력면에 대한 식생활 관리 태도를 비교해 보

〈표 5〉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시간·노력면에 대한 비교¹⁾

| 내 용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식사 준비시 다른 식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 4.0 ²⁾ ±0.1 | 2.2±0.1 | *** |
|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조리 되었거나 가공된 식품을 이용한다 | 4.0±0.1 | 1.8±0.1 | *** |
| 부엌을 일하기에 효율적인 장소로 만든다 | 3.1±0.1 | 4.3±0.1 | *** |
|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모아두고 필요할 때 이용한다 | 3.0±0.1 | 4.1±0.1 | *** |
|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리 기구를 활용한다 | 3.2±0.1 | 4.1±0.1 | *** |
| 시장을 보기에 앞서 식품 구입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 3.1±0.1 | 3.8±0.1 | *** |
| 매끼 식사시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한다 | 2.2±0.1 | 3.2±0.1 | *** |
| 평소에 식단을 작성하는 등 식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2.6±0.1 | 2.7±0.1 | NS |

1) 평균±표준오차

2)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p<0.001

NS: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α=0.05).

면, <표 5>와 같이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사 준비시 다른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조리 되었거나 가공된 식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반면에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생활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엌을 일하기에 효율적인 장소로 만들거나,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모아두고 이용하는 정도가 낮으며, 조리시 각종 기구를 활용하는 정도 등은 낮았다($p<0.001$). 또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시장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장 보기에 앞서 식품 구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끼 식사시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점에서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보다 소극적이었다($p<0.001$).

한편 식단을 작성하여 식생활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공단 지역군이나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 모두 식단 작성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식생활 관리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키기 위해 대체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편의 식품을 구입하는 일 이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생활 지식의 부

족 등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영양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4) 기호면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의 기호면에 대한 식생활 관리 태도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보다 식사 준비시 식품, 음식의 조리법, 색, 맛, 질감 및 온도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가족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가 낮았다($p<0.001$). 반면 즐거운 식사를 위해 대화를 하거나 각 요일 및 계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정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단 지역군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취업에 따른 식생활 관리 시간의 부족이나 저소득에 따른 식비 부족 및 식생활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 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영양 섭취 위주의 식사가 되기 쉬우며,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호 위주의 식사가 된다고 보고되어(최홍식, 1999), 본 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표 6>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기호면에 대한 비교¹⁾

| 내 용 | 공단 지역군 | 비공단 지역군 | t-test |
|--------------------------------|------------------------|---------|--------|
| 한끼의 식사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 2.6 ²⁾ ±0.1 | 3.0±0.1 | ** |
| 한끼의 식사에서 음식의 조리법을 다양하게 한다 | 2.4±0.1 | 3.5±0.1 | *** |
| 한끼의 식사에서 음식의 색을 다양하게 한다 | 2.7±0.1 | 3.3±0.1 | *** |
| 한끼의 식사에서 음식의 맛을 다양하게 한다 | 2.9±0.1 | 3.8±0.1 | *** |
| 한끼의 식사에서 음식의 질감을 다양하게 한다 | 2.6±0.1 | 3.1±0.1 | *** |
| 한끼의 식사에서 음식의 온도를 다양하게 한다 | 2.1±0.1 | 3.7±0.1 | *** |
| 즐거운 식사를 위해 식사 시간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 | 3.3±0.1 | 3.3±0.1 | NS |
| 각 요일이나 계절에 알맞은 음식을 제공한다 | 3.1±0.1 | 3.2±0.1 | NS |

1) 평균±표준오차

2)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p<0.01 *** p<0.001

NS: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alpha=0.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 환경이 가족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연구로, 산업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공단 지역 가정의 식생활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의 공단 지역과 비공단 지역에서, 편의상 각 지역군의 전형적 특성을 갖고 있고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서 가계 부를 쓰고 있는 가정에서, 각각 192명의 어머니를 선정해 설문 조사를 통하여 두 군간에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공단 지역군과 비공단 지역군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5분위 계층으로 했을 때, 각각 1분위와 3~4분위에 해당되었다($p<0.001$). 조사 대상 부모의 연령과 함께 식사하는 가족수는 두 군이 비슷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공단 지역군이 비공단 지역군보다 낮았다($p<0.001$). 또 공단 지역군 어머니는 모두 공장에서 단순 또는 숙련 노동을 하며,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조사대상자의 31.2%만이 판매나 사무직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또 공단 지역군에서는 가정의 식생활 관리를 어머니 이외에 다른 가족이 맡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에 비해, 비공단 지역군은 어머니만이 식생활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다.

(2)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영양면을 보면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가족의 영양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 공단 지역군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보다 영양 지식 점수가 낮으며, 영양 지식을 자녀로부터 얻는 비율이 높았다($p<0.001$).

(3)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경제면을 보면 공단 지역군이 비공단 지역군에 비해 가구당 월평균 총식비와 1인당 식비가 낮으며($p<0.001$), 특히 동물성 식품 구입비, 간식비 및 외식비가 낮았다($p<0.001$). 가족의 외식 횟수와 일회 외식비도 공단 지역군이 낮으며($p<0.001$), IMF 이후 식비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은 공단 지역군에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시간·노력면을 보면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생활 관리를 위해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p<0.001$), 효율적인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식생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엌을 일하기에 효율적인 장소로 만들고 계획적으로 식품 구입을 하는 점 등에서는 소극적이었다($p<0.001$).

(5)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중 기호면을 보면 공단 지역군 어머니가 비공단 지역군 어머니에 비해 다양한 식품을 소개하거나 음식의 조리법, 맛, 질감 및 온도 등의 다양화 등에 있어 소극적이었다($p<0.001$).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공단 지역과 비공단 지역이라는 가정 환경은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단 지역군의 어머니는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생활 관리와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의 영양 관리를 위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영양 지식, 식비, 시간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나, 오히려 인적, 물적 자원이 더 풍부한 비공단 지역군의 어머니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가족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도 식생활 관리 여건이 좋은 집단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저소득 취업모 가정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 교육 제공뿐 아니라 영양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된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 공단 지역 가정과 비공단 지역 가정의 정의가 우리나라 전체의 공단 지역과 비공단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본 연구가 전형적인 공단 지역 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명희, 송은주, 이미숙, 박옥진(1992).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영양 태도, 영양 지식도 및 식생활을 통해서 본 영양 교육의 효과. *한국영양학회지*, 25(2), 162-178.
- 김미경, 기모란, 방금녀, 김기량, 최보율, 권영준, 이상선, 김찬, 강윤주(1998).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도시와 농촌 중고등학생의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4), 542-555.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 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인숙(1991). 주부의 취업이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하태영, 김영진(1995). 전국 중학생 어머니의 영양 태도와 식습관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8(2), 152-161.
- 박영선(2000). 도시 지역 주부의 식생활 관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산 도와 울릉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131-147.
- 박혜련, 이경희, 류정순(1997). 도시 가게 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득계층별 식생활 패턴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633-646.
- 변창진, 최진승, 문수억, 김진규, 권대훈(1997). 교육 평가. 서울: 학지사.
- 소연경(2000). 도시 가게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IMF이전과 이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손숙미, 박성희(1999). 도시 저소득층 취학전 어린이의 영양 상태에 관한 연구: I 성장 발육과 영양소 섭취량.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2), 123-131.
- 안산시(1998). 안산시 통계. 안산시.
- 예종립, 김선효(1996). 대전 지역 편모가정과 정상가정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6), 155-167.
- 이건순, 유영상(1992). 농촌 주부의 영양 지식, 식생활 행동 및 영양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63-76.
- 정문자, 이미리(1998).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 척도 개발과 대처 행동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29-143.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 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 정용선(1989). 소득 수준 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충영, 최이규(1998). SPSSWIN을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 후 생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정희정(1995). 서울 지역 가구의 소득계층별 영양소 및 식품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1998). 가게의 식료품 소비 형태와 개선 방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3), 474-479.
- 최홍식(1999). 식품과 현대인의 식생활. 서울: 지구문화사.
- 통계청(1997a). 생활 속의 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1997b). 도시 가게 연보. 서울: 통계청.
- 현기순, 홍성야, 임양순, 이애량(1998). 식생활관리학. 서울: 교문사.